M2830#

"군장병 신행지도 최선 다해달라"

총무원장 자승스님, 신임 군승 예방 받고 당부

명의 군승은 2556년 7월2일자로 군 이에 신고합니다

신임 군승들이 지난 2일 조계종 바'용 서워하다 시의 구수이 시고 를 받은 축무원장 자승스님은 "군법 사가 되고자 했던 외련과 신식을 약 지 말고 임기동안 활동하기를 바란 가라게 생활하도록 지도한 사명은 항상 재기면서 초심으로 생활하기 스님은 "어느 종교보다 많은 장병들 이 병단을 찾을 수 인도로 시행되다 에도 회사용 대체되어 ''며 다조야 기 념품을 전달했다. 이에 조계중 군종 특별교구장 자광스님은 "음해 임관 한 군소은 6개위간에 검쳐 포고에 필요한 집체교육을 받고, 이후 3개

"시고하니다 대의 간거우 이 19 - 평년다 화반하 저번화도은 기대공 7 90F 7 999C

지난 6월29일 임관한 군승은 12 명. 육군 7명. 해군 2명. 공군 3명이 배출됐으며, 전국 연대급 법당에 배 치돼 포교화동에 전념하게 된다. 또

신임 군승 12명 "첫년포교 매우 중요 사명감 전법" 다짐

이날 신고식을 한 신임 군승 가운데 느 하여박 저어 요 구조자고근 제어 대하 스니트 9명 이어다 제외 회 출가수령을 하던 중 군중장교로 재 입대한 여정 강건욱 법사(대위)는 "정년포교를 위해서는 군포교가 매 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군숨을 지원



시입 구속 12명이 되나 2일 하문복군임사문하기년피에서 조계중 홍모원장 지속시니요 예반 참녀포고 활성하름

하의 조세주 구주트바고구는 시인

집합 계획이다. 군승부보생은 동국 대 불교대학이나 중앙승가대에 재 학 중인 스님으로, 국방부가 심시하

요원은 일반대학 졸업자 가운데 총 가한지 2년이 경과한 스님이면 신청 이 가능하다

봉녕사 단기출가 미혼여성들 학인스님들과 함께 생활한다

'청년템플스테이' 도 개설

20~30대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총 가소해자이 상은 됐어라는 기하가 마련되다 수위 보네시시주지 자연스 년)는 오는 27일부터 8월3일까지 8 일간 일정으로 '정년 단기총가' 템 품스테이를 심시하다 또 대하세요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단기총가 프로그램은 총가수행에 과식은 둔 여성들이 직접 총가색함 응 원하라도로 기정을 제고하기 외 해 마련됐다. 수행자의 일상을 직접 체험해 장기적으로 도제를 육성하겠 다는 것 포교교장 정원스님은 "단연 스님은 봄넘사를 참건하면서 한명의 에 이제(시구)이 사꾸(바바)로 만든 게기는 일반을 세워기가 바 '마음 네 성들이 축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체험 기회를 통해 스스로 판단 학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했사를

지구촉공생회 마련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한인 스님과 함께 색

활하면서 새벽예불에서 저녁 취심까 지 축가색화용 원하하게 되다 대한색 및 20대 정보을 위한 변품 스테이도 열린다. 13일부터 열리는 청년템품스테이는 "청년들에게 올바 트 상이 바라온 제시하고 자기 성화 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 다. 템품스테이는 첫날 오리엔테이션 에 이어 첫날 예불 후에 광관재계를 반고 축가기간 내내 광재계를 지키 대서 생화하게 되다 또 '자기 해보

창조'를 주제로 마가스님이 강의를 하며, 주제가 있는 건기명상, 받우곤 양. 다두, 배광왕의, 명상 등의 시간음 갖는다. 주지 자연스님은 "그동안 봄 네사는 숫가대항을 중심으로 함인 스님 교육도라이는 여왕은 영다 제 가불자를 위해 사장을 개반하는 것 한국과 비교했을 때 150배가 높 은 처음"이라며 "많은 젊은 봉자들 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 실정이다. 비위생적인 출산편

대한생복사다체 '프리메드'

모성건강 위해 케냐산모 지원

지구초곡생하(이사장 워즈스 님)와 대학생의료봉사단체 프리 DEC(freement) 71 WILL VIXIOUS 지역 모성건강증진을 위해 손을 드는 지난 6월29일 비위생정인 출사 화경에 노출대 이는 사무들

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 인 사업을 시작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4년 자료에 따르면 개박도상국 15~35세 여성들이 사망하는 원 이 가운데 20%는 이신 및 출신 시 바색하는 완벽주 때문이라고 방표했다 케냐의 무성 사망들은



경으로 강영과 과다 축영로 인해 10~15배나 높다.

이에 지구혼곳생하와 프리테트 느 간여용 바지하기 의해 총사 주 사용할 수 있는 출산키트와 임신 중 간편 진단이 가능한 산모 검진 세트, 건강에 대하 이십개선 프로 그램 진행, 현지 간호 인력을 대상 O로 하 사용면 교육 등을 펼치다 이달 중 카지아도 마을 30곳에 출

Alight ompto HIXISEL 지구혼공생회는 "현지 보건당 국과 연계해 산모들이 안전한 편

경에서 출산함 수 있도록 힘씀 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지 연보건소에도 산무건진세트를 배 표현 전"이라고 바이다 하되 표 리메드는 '대한생들의 아이디 로 의료 사각지대의 '넨통'을 메 우는 새로운 의료문화를 만들어 간다"라는 목표로 다양한 전공을 가진 대한생들이 의료 소의 계층

에 화동을 팹치고 있다. 250여 명 이 회원으로 최대 중국 이어터 최 재는 5.6기가 활동 중이다 용다영 기자 range e

일제강점기 불교계 항일 운동 '민족주의 지햣했나' 논쟁 치옄

불교사회연구소 세미나…태허스님 등 조명

인제간장기 주구으로 바면해 돈 - 대 지난전 복규게 이사들이 미족유 린운동에 투시했던 진보점이 불고 계 청년인사들은 새로운 시대사조 용해 다시 분정지역의 하이미족은 등을 주도했고 독립운동의 한 노선 음 구축하고 활동했다. 이들음 후 구봉교이 저불과 정시용 이어바이 고권회복을 위해 민준은등을 전계 했다." (이동안 한국독립운동사연 구소 #9001구의의

"당시 진보적인 불교계 청년인 사들은 기본적으로 스님이었고, 북 경유학인 불교계의 조직적인 활동 의 결과였다면 책경 활동도 스님으 무서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김성 수(대원스님) 등이 사이즈이저 성 향을 보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을 사회주의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 (신운용 운암김성숙연구소 소장)

조계종 불교사회여구소(소장 법 안스님)가 지난 6월29일 한국불교 '인제강전기 불급계이 하인유통' 음 주제로 주회하 중군봉공연구 1 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과 신문용 운약검색소연구소 소장은 1920~에너티 주구으로 따면서 등 립운동에 나섰던 진보적 불교계 인 사들의 성격 규정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펼쳐다.

다"고 강조했다. 이동언 연구위원은 '1920-30년

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김성숙. 한병신, 김봉환, 김규하 등 9명을 족운동을 조명했다. 특히 김성숙 등이 조직한 북경불교유학생회를 두고 "단순한 불교 학술단체가 이 나라 사회주의 성향을 띤 단체"로

규정했다 이동안 연구위원은 "김 성숙 등이 북경불교유학생회를 북 경조서요하세구라보 부경고권요 학생회로 발전시키면서 사회주의 운동을 주도했고, 공산주의 사상을 수용해 민준운동을 전개했다"며 *1923년 김성숙을 비롯한 6명의 스님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등 시시사용 소용해 미족유투용 저게 하기 위해 북경으로 망명했다"고

SHORE 이에 대해 논평자로 나선 신문 용 운약감성숙연구소 소장은 "감 성숙 등은 불교적인 체계를 가지 고 움직였으며 이것이 사회주의 심체을 아니다"는 인장을 바랍면 이동언 연구위원의 주장을 반반했 다. 신운용 소장은 "김성숙 등의 북경유학은 불교계의 진로 모색의 일확이었지 사람주의 실현에 있지 있어용이 보면공다"며 "김성수이 사상적 지향점은 1942년 임시정부 참여 등에서 보듯이 민족주의였

엄태규 기자 chett@balon

"뜻 깊은 곳에 사용해 주세요"

연화정, 아름다운 동행에 직접 재배한 보이차 보시



에 후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연화정 대표 왕왕일 씨는 지난 3 의 한국부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사무총장 해일스님에게 물품을 전

아름다운동생으 1200만의 사다 의 보이차를 누인성지시성이나 다 도수업을 전문적으로 시험하고 있 는 불교계 어린이집 등에 공고부



사무총장 헤일스님은 "주변에

승복집이나 불교용품점이 많지만 물품을 후원한 사례는 거의 없다 며 "이같은 선행이 알려져 다른 곳 에서도 문화했으며 하다"고 반했 다. 왐 대표는 "의미 있는 보시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성 명 서

종단 쇄신안 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먼저 수행이 있고나서 도량이 마련되었다.'

수원=만직수 기자

- 송광사 사적비 중에서…

사찰은 수행을 위한 공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 기능이 점점 커져 예경의 공간이 되고 재가자 들을 위한 신행과 포교의 공간으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나 그 시작은 수행에 있고 수행은 우리 불교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불교도로서 또 중도로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였던 불미스러운 일들과 최근 발생하였던 조계사 중무실장에 대한 폭행사건이나 마곡사 중무실장에 대한 폭행테러는 사찰에 근무하는 재가중무원 모두에게 큰 실망감과 참담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사찰에서 정신 적인 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종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결코 좌시

비록 일부의 일이었으나 이를 계기로 쇄신의 의지를 다지면서 거듭나기 위한 중단의 쇄신안 발표는 매우 화영할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종무원협의회는 종단의 쇄신안을 적극 지지하며 아울러 본 쇄신안이 조속히, 그리고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실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 하나, 종단은 본 쇄신안이 교단과 종단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단 쇄신 법안에 대한 시행령 등을 조속히 제정·시행하고
- 하나 주안에서보던 모든 막사에 이르기까지 본 세시아이 정착되고 물건성 없는 세시이 이핵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 하나. 사찰 종무워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전국 제일의 일터 로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불기2556년 6월